

23세기 감각: 이피세 매뉴얼

이원(시인)

<현생누대 신생대 이피세 LeeFicene>로 진입하면

첫 느낌은 만다라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충분하다. 반짝인다. 와글거린다. 만다라를 저절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아주 작은 지점까지 정교하다. 생생하다. 밖에서 보면 몸을 가르고 펼치는 것이고, 이피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몸 안으로 뛰어들어 날날이 겪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 기관은 자유자재로 변형되고 뻗어가고 증식한다. 좌우대칭인 듯 보이나 좌우비대칭이다. 같은 듯 보여도 같은 배치, 같은 모양은 없다. 같은 위치의 손가락이어도 어느 한쪽은 약간 더 짧아도 짧다.

신체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발굴되는 현장, <이피세>는 놀랍고 새롭고 재미있다. 그러다 멈추고 골똥해지는 지점이 생기는 것은 최소의 형상인 하나하나가 프랙탈이기 때문이다. 한숨 한 방울(<한숨>)에 세상의 하루가 담기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는 역전이 눈앞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피세>를 돌아보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자꾸 자꾸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다라 속 프랙탈 또는 프랙탈 속 만다라

신화와 동화가, 동양과 서양이, 성(聖)과 속(俗)이, 현실과 초현실이 등가없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만다라다. 최소가 최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프랙탈이다. 이 만다라 속 프랙탈, 프랙탈 속 만다라를 경험하다 보면 만다라도 프랙탈도 아닌, 다른 도형-다른 수식-다른 물체-다른 접근-다른 송출-다른 이입이다. 이피의 세계를 ‘23세기 감각’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다.

선언: 현생누대 신생대 총적세가 아니라 “현생누대 신생대 이피세”라는 선언은 이 거대한 시간을 전적으로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이피세”에는 이미 <내 몸을 바꾸기 위한 진열대>가, <웅녀>가, <모든 종교의 천사>가, <촛불을 든 백만 개의 손을 위한 만다라 프로젝트>가, <나의 나방>이, <바닥까지 비천해진 희망인>이 기거한다. 21세기식 구분을 한다면 개인, 사회, 현실, 지구, 우주, 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전방위적이고 깊은 탐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종횡무진: 하나다. 하나다. 그런 계속됨이다. 또 하나다 보다는 그냥 하나다. 각각은 하나의 우주다. 슬픔에 빠진 지네는 갇힐 수 없다는 듯이 손인 듯 발인 듯 보이는 형상을 내밀지만, 모공은 앞으로 덮여간다. 굳어지는 앞마다 슬픔의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앞 속을, 앞 속의 앞맥을, 앞맥 속의 허공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사방이란 무궁 무진이라는 뜻.<현생누대 신생대 이피세 00011 모공에 슬픈 얼굴을 키우는 지네> 이피는 이런 무궁무진 전체의 설계자이면서 현장 건설자다. 자재는 언제나 '나'에서 비롯되므로, 가시적 지점과 비가시적 지점을 넘나든다. 문턱도 없이 오고 가는 이 거리는 모든 것이어서 아무 것도 아닌 거기, 본래(本來)에서 여기, 그리고 우주 너머까지다.

이피경: 백남준이 TV라는 대중적인 매체에서 최초의 비디오 아트를 발명했듯, 곰이 한국 최초의 여자(<옹녀, The First Woman of Korea>)가 되었듯, 이피는 최초의 발굴가가 되고 싶어 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체를 발명하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송출한다는, 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백남준과 같은 결이지만, 철저히 자신의 안으로 밖을 만든다는 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밖이 다시 안으로 순환한다는 면에서 갈라진다. 개척과 동시에 개척을 지우기, “360도 회전하는 그림인간의 눈”(작가노트)을 가진 이피 버전의 산해경(山海經)은 이 방식에서 기록되고 있다.

감각의 아이코노그래피

직전에서: 형상화되기 이전, 관념으로 의미로 포획되기 이전. 보이지 않는데 느껴짐, 그러니까 오직 닿음. 시적인 바로 그 순간.

난자x트로피: 우선은 신선한 에그고 핵심을 가진 에그고 그래서 에그는 트로피로 탄생한다. 깨지기 쉬우나 안을 말갭게 드러내고 있는, 생물실의 표본 같고, 모르는 나라의 음악 같은, 에그의 에고는 무수한 발맞추기, 색색의 손 흔들기를 시도한 흔적이다.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 한시도 멈추지 않는 출력이라는 뜻.<난자의 난자 egg of ego>

결/겹: 빨간 피는 솟구쳐 오르고.<옹녀> 여행용 수트케이스처럼 열어젖힌 몸 안도 온통 빨강이고.<내 여자의 창고를 열다> 마땅히 생각은 겹겹이고. 손이 직접 가른 몬스터였다는 고백. 그러니 단단할 수밖에. 그러니 힘 있을 수밖에. 그러니 유려할 수밖에. 그러니 꿈틀거릴 수밖에.

“해와 달 분의 일”: 허공에는 전등. 새. 자가발전 하는 물고기. 기타는 물구나무를 연구 중. 뿔 준비는 무릎 꿇을 준비와 동일한 자세. <천사의 내부>에도 각종의 날씨가 있어 칸칸의 오늘에는 못한 말을 할 입술이 숨어 있고. 윗입술의 봉긋함은 가슴을 닦았고. 거기에서 혀는 빠져나온다. 앞장선 “메롱”을 찾아봐.

레이스x명태: 층층의 흰 레이스를 뚫고 날아오르는 피부. 날아오르는 것은 흰 레이스가 아니라 이름하여 명태포. 레이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느닷없는 조우고(그래서 명태포는 꼬리만 보이고), 피부만 남은 명태 입장에서 보자면 발톱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날개를 위한 맞춤복> 그래, 포(脯)는 포(砲)다.

무한대로 심해로: 날개는 아직까지 다섯 개.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프로펠러 같아졌다(물론 사용하지는 않는다). “모든 종교의 천사”라면, 압도적 천사다. 진정한 천사다. 진정한 천사라면 모든 종교 밖에서 탄생할 것이고, 모든 것이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수학, 무한대가 된다. 스스로를 맹신하지 않기 위해 올린 기도의 응답으로 빗발치는 비늘 같은 날개를 가지게 된 <모든 종교의 천사>가 전하는 말은 이렇하다. 심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심해에서 내려왔거든. 깊은 곳, 심해에서는 어둠이 배경이지만, 뚫고나오면서 어둠이 형체가 되거든. 오른손과 왼손에 든 것의 실체? 그것은 피부 아래 묻어두었지. 각자의 수식으로 풀어보시라고.(<모든 종교의 천사>)

‘모든’을 위한 맞춤형

2255년 6월 9일 금성이 태양면을 통과한다고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은 예측하고 있다. “이피세 대백과”에 따르면, <19명의 성인남녀를 싣고 가는 거미소녀>, <모든 동식물의 다리를 다 붙이고 있는 불가사리>가 출현했다. 기존의 단어로는 포획되지 않는 이 세계가 ‘모든’을 위한, ‘모든’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것은 분명하다. 놀람보다 먼저 뻗어나간 상상력이 그 증거다. 여기에 이피의 존재감이 있다. 23세기에서 온, 들끓는 검정과 검정의 안과 밖을 금색으로 발굴하고 있는 <현생누대 신생대 이피세>는 대단한 기세다. 귀하고,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매우 멋있다.